



opology is the study of h
pology analyses human
context of history and cu

역사와 문화 속의 인간



홍보영상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홍보영상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관하여 사유하고, 그 결과를 표현합니다. 자신과 주변세계에 관한 인간의 사유와 표현에는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들이 개입합니다. 인간을 역사와 문화 속의 존재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속의 인간' 강의를 함께 할 성신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김길웅 교수입니다. 인간을 역사와 문화 속의 존재로 파악한다는 말은, 인간은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이해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자신이 만든 문화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 역사와 시대에 따라 인간에 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인간을 역사와 문화 속에 놓고 이해하며, 이것을 인간학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시도들이 최근 몇 십 년 간 활발한 흐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에 관한 이해를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인간학적 탐구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에 관한 완벽한 이해를 시도했던 18세기 이후 현대에 접어들면서까지 '인간학'은 역사, 종교, 문학, 예술 그리고 문화라는 학제적 영역을 포괄하여 새로운 학문 영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이 강좌에서는 다양한 문학작품, 철학적 사상, 예술적 표현, 역사적 사실 등을 예로 하여 각각의 역사 시기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고 정의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학의 중요 주제들, 다시 말하면, 육체와 정신, 이성과 열정, 불안, 문명과 몸, 멜랑콜리아, 죽음, 존재론적 비극성, 웃음과 눈물, 언어와 침묵, 숭고, 성스러움, 권태와 순간 등의 개념들이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에 관한 이해가 결국은 역사와 문화의 산물임을 밝히며,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그 설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